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회지의 국제화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보다 나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소서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금년은 특히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회원 수가 3천여 명에 달하며, 학회지인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JMB)'는 SCI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로서 2004년도 IF값이 1.663에 이르는 등 국내의 바이오 관련 학회 중에서 가장 높은 인용도를 보이고 있어 명실 공히 국내의 최고 학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JMB는 매호당 35편 정도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고, 순수 외국인 논문도 연간 50여 편에 이르고 있다. JMB가 지금의 수준에 오르게 된 것은 학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 회원들과 많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었고,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회지가 외국의 유명 학술지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아직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보다 더 분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술적인 수준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학회의 활동 중에서 중요한 행사는 정기 학술발표회와 학회지 발간일 것이고, 학회지는 학회의 얼굴이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순수 미생물학을 바탕으로 두고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산업미생물학회로 태동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세계

적 발효기술과 우수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생물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미생물 산업분야는 최근 다소 고전적인 기술로 취급되는 분위기이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근래의 생명공학의 기저가 미생물학에 바탕을 두었고, 현재까지도 대장균을 비롯한 많은 미생물들이 생명공학 연구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특히 발효산업을 비롯한 제약산업에서 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어서 미생물학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학회회원들의 학술활동이 매우 왕성하다보니 학회지의 한정된 지면 때문에 투고 논문을 모두 게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편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학술지의 발행 횟수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금년도부터 학회지 발행 횟수를 연간 6회에서 12회로 늘릴 계획이다. 국외 유명학술지도 대부분 연간 12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우리 학회도 국제화의 추세에 맞추어 한 발자국 전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이는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지원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나은 국제 학술지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관계 당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㉔



글 | 고희형 _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